

# 책과 기억의 함수관계

《발견자들 I·II》(다니엘 J. 부어스틴, 이성범 옮김, 범양사출판부, 1987)은 인류 문명 속에서 책과 역의 함수 관계를 맺어온 기억의 흥망성쇠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인쇄술이 퍼지기 전 기억의 전성기에는 연예인, 시인, 가수, 의사, 법률가, 성직자 모두 뛰어난 기억력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는 이용이 불편했고 자주 퍼붓으므로 해서 글씨가 찢겨 나가기도 했다. 분리된 페이지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인용 귀절을 확인한다는 게 귀찮은 일여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사정은 일변한다고 부어스틴은 말한다.

“인쇄된 책은 각 개인이 내부의 보이지 않는 창고에 갖고 있는 것보다 무수한 면에서 우수한 새로운 기억의 창고였던 것이다. 제본된 고사본의 페이지가 두루마리 필사본을 대치함에 따라 기록된 근거를 참고하기가 수월해졌다. 12세기 이후에는 어떤 책에는 도표, 목차, 나아가서는 초보적인 색인을 가진 것이 나타나, 이미 기억이 고대의 역할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인쇄된 책에 제목 페이지가 있고 그 안의 페이지들에 번호가 매겨졌을 때에는 참고하기가 더 쉬워졌다. 16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색인이 생겨나면서 기억의 역할이란 알파벳 순서를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18세기 말에는 책 뒤에 알파벳 순의 색인이 붙는 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었다. 기억 회복의 기술은 완전히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인류문명 속에서 책과 기억은 ‘역’의 함수관계를 맺어왔다. 다니엘 부어스틴의 책에는 이 흥미로운 역사가 묘사돼 있다. 인쇄술이 퍼지기 전, 기억의 전성기는 책이 등장하면서부터 소멸되기 시작한다. 망각이 기억의 전제조건이라는 역설도 등장한다. 하지만 기억은 주체의 마지막 보루가 아닐는지.

였지만 종교, 사상, 지식의 영역에서 극히 작은 역할을 할 뿐이었다. 찬란했던 기억의 기법은 단순한 취미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래서 1580년 몽테뉴는 “좋은 기억은 대체로 우둔한 판단과 결합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강한 기억력을 가진 바보보다 더 혼란 것은 없다”고 빈정대는 사람도 나왔다. 그러나 이미 2천년 전 소크라테스는 문자를 발명한 이집트의 신 토드가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타무스 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고 피에드로스와의 대화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 질책의 내용은 이렇다.

“너의 이 발명은 배우는 자의 영혼에 망각을 만들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억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밖으로 나타난 글자만을 믿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믿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발명한 그 묘한 것은 기억이 아니고 회상의 수단이 될 것이며, 너의 제자들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와 비슷한 것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기억에 대한 관심의 쇠퇴는 학문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들은 기억보다는 오히려 망각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망각이 기억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개인에게는 들어맞을지언정 적어도 문명 자체에는 적용시키기 어렵다. 문명은 책과 도서관이라는 그 나름의 기억 공간에 모든 정보를 갈무리해두기 때문이다.

공룡처럼 거대해지는 문명과 개미처럼 왜소해지는 개인의 간극은 어쩌면 이 원초적인 기억조건의 차이에서 유래하는지도 모른다. 그 간극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적어도 그것이 기억의 포기를 전제하는 길 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방대한 책을 섭렵한 뒤 그것을 짜입새 있는 기억의 저장고에서 능란하게 끄집어내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부어스틴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듯하다.

“전통 세계에서 기억의 중요성, 책이 등장하면서 기억의 감퇴,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 그러나 책은 죽은 지식, 기억은 살아 있는 지식(엄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한편 윌리엄 제임스는 오히려 망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망각을 못하면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역설)

그러나 기억은 주체의 마지막 보루가 아닐까?”

# 출판저널

통권 제173호/1995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화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허연  
                  한 강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욱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료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료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료용지에 본사 지료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502호/전화 733-3135(대)/팩시 739-8791



## 편집부 경력 사원 모집

# 정신세계사에서 같이 일합시다

정신세계사는 파란색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파란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세계사는 10년 넘게 한 우물만을 파 왔습니다.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한 가지 색깔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세계’라는 색깔입니다. 그러나 같은 파란색이라 해도 수많은 색이 있을 수 있듯 ‘정신세계’ 속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이 ‘편집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들 못지 않은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파란색을 고집하면서 좀 색다른 파란색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신세계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해 주십시오.

경력 1년 이상, 외국어와 컴퓨터를 잘 할수록 좋고, 되도록 나이는 서른을 넘지 않고, 한 군데 오래 근무할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조건에 맞는 분이면, 사진이 붙은 이력서 1매, 자기소개서 1매(A4 1면), 임의의 정신세계사 발행도서 1권에 대한 독후감 1매(A4 1면), 자신이 주된 역할을 해서 만든 편집물 1점을 오는 7월 22일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서류를 검토하여 면접할 의사가 있는 분께만 7월 29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결봉에 ‘입사지원 서류’라고 쓰시고 문의나 직접 방문은 자제하셔서 저희 시간을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